

科學著述과 媒體

과학기술 정보수요의 촉진방향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이유는 그 습득된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올바른 행위 과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도움의 필요성이 급박한 것일수록 정보수요 또한 급증할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해야할 상황이 긴급할수록 각종 자동차에 대한 문의들을 곧장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66

# 科學技術의 事件化·政治化 질실

99

의 각종 커뮤니케이션매체가 바람직한 길을 가고 있는가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정보습득 이유와 연결시키면 쉽게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정보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정보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 있다. 흔히 우리가 일컫는 소위 생활정보 내지 생활뉴스는 바로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면에 교양서적을 탐독하고 교육과정의 지식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후자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관련성(relevance) 내지 개입도(invovement)가 높은 이슈들일수록 그것에 대한 정보수요가 급격히 일어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번에 이상구 신드림(syndrome)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크게 일어났던 건강관련 정보수요의 폭발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과학기술 정보의 대부분은 바로 그런 정보의 시간적 유용성과 비교적 떨어져 있다는



金 學 銖

(西江大교수 · 신문방송학)

점이 과학정보의 확산에 관련된 단점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정보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 도움을 주는 필요한 정보라기 보다 먼 미래에 필요한 정보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련성(relevance)이 낮고, 따라서 그들의 적은 정보수요로 말미암아 정보확산 또한 느낄 수 밖에 없다. 물론 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높은 관련성이 그것에 대한 정보확산이 빠를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확산을 시킬려면 우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과학정보가 또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이것은 그 매체가 살고 있는 정보의 소비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과학저술 내지 구술의 수요도 증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전달과 그에 대한 접촉이 활발해지면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을 또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과학대중화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지 결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정보확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관련성이 높은 이슈들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의 사전화 내지 정치화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이라든지, 바로 얼마전에 있었던 상온핵융합실험의 성공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논란등이 바로 과학기술이 사전화된 경우들이다.

물론 전자는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사전화된 경우이고, 후자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에서 제기된 사건이다.

이들의 논란을 통하여 어쨌던 사람들은 해당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상당한 정보접촉과 지식습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부정적인 문제라고 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과학대중화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일으킨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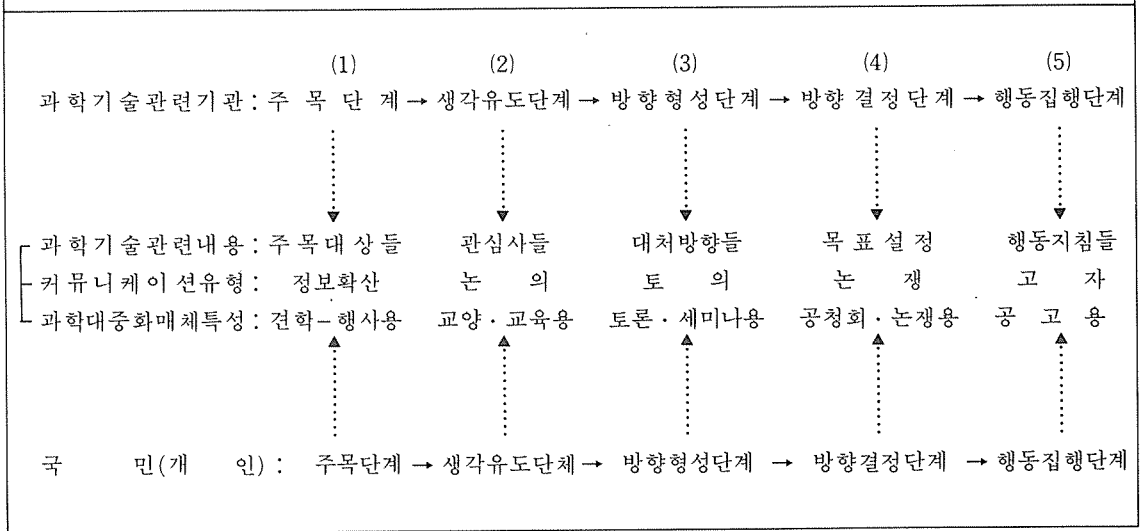
###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활성화 방향

적극적으로 과학대중화를 일으키는 데는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높은 과학기술안건들을 제기시켜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매체들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데 그 다양한 매체라는 것도 막연히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요에 따라 나타나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필요한 부문들을 알기 위하여 필자가 개발해 놓은 다음 모델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1> 참조.

주목단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단순히 정보확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보를 소화해 줄 수 있는 매체이면 무엇이든지 좋을 수 있다. 일반 일간신문에서 과학기술 관련 단신을 보도하는 것등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과학기술 관련기관에서 스스로 그것의 이용자들에게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조그만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주목단계에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다. 예를 들면, 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특별 강연회나 전시회를 알리는 전단마련이 바로 그것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에서 이런 간단한 매체의 개발도 시급한 것이 현실정이다. 그리고 이 주목단계에서는 특별히 긴 과학저술이나 구술이 필요한 것은 아

이 글은 지난 6월 3일 한국과학저술인협회가 주최한 「89과학기술진흥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편집자註〉

〈그림-1〉 기본행위 단계별 과학대중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니다. 따라서 과학저술가의 본격적역할이 비교적 적게 요구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유도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관심형성을 마련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로소 과학저술가의 본래 역할이 필요하고 아울러 보다 긴 과학저술의 마당이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에 걸맞는 매체는 각종 잡지류나 방송의 교육용 내지 기획물 프로그램들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그외에 과학전문 신문이나 교양서적 등도 이 단계에 유용한 매체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유도 단계에 필요한 각종 매체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이나 질적인 면 모두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이미 연구를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바가 있으므로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방향형성단계와 방향결정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심각하고도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열띤 토의와 논쟁이 다루어지는 매체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이 생각유도단계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위한 기존 매체의 활성화 내지 새로운 매체개발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에 전문과학잡지들이 몇개 있지만

모두 순수과학적인 측면에서 흥미있는 지식보급류의 성격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부분에서 부정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문제시되는 것들에 대하여 열띤 논쟁의 마당을 전적으로 마련해주는 매체들이 긴요한 실정이다. 방송의 경우에도 과학에 관한 논쟁적 토론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과학저술 내지 구술가의 보다 드러난 대국민 활동이 가능한 곳도 바로 이들 방향형성 및 결정단계들이다. 그러나 이들 논쟁의 단계에 동원되는 내용이 반드시 과학기술의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적인 논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 대중의 관련성을 띄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토의와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매체를 상대로 하는 상황에서는 과학저술가의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논쟁적 커뮤니케이션과 매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이 사안의 문제시화, 즉 과학기술의 사전화 내지 정치화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절실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끄러워지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들 때문은 아니다. 설사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그들의 문제성이 올바르게 교정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과학대중화, 다시 말해서 국민적 폭넓은 이해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시끄러워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공해, 핵, 보건, 심지어 과학수사의 활동까지도 바로 이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논쟁점들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긍정화시키는가가 관건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관련사건의 담당기관이나 그들을 놓고 논쟁을 이끌어가는 매체와 더불어 과학저술가의 활동들 모두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뛰어드는 자세가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동집행단계에서는 주목단계와 비슷한 단순 고지활동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중매체의 특성에 어울리고, 따라서 과학저술가 내지 구술가의 특별한 능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런 것에는 과학전문 일간신문 내지 주간신문 같은 것이 무엇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매체에 해당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다섯 기본행위단계별 과학대중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유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단계별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매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현실성에서 무엇보다 소홀해왔던 단계들의 과학기술관련 및 저술가의 활동내용과 매체가 어떤 것들인가도 대강 살펴보았다. 특별히 우리의 경우 방향형성 및 결정단계에 필요한 토의나 논쟁적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왔고, 그것을 위한 기존 매체의 활용과 새로운 매체의 개발에도 소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결 론

이 조그만 글에서 다룰려고 했던 점은 크게 보아 과학기술 관련 대중매체가 여러가지 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를 알아보고, 그로부터 과학대중화를 위한 과학저술과 구술에 필요한 매체 전략을 대강이나마 검토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

므로 우리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할 점들로 세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이 과학기술의 사건화 내지 정치화를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과학기술정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정보가치의 비절실성으로 사람들에게 관련성 내지 개입성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매체는 물론 정보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토의와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반 대중을 위한 매체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존 일반매체에서도 과학관련 논쟁들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지면 또는 프로그램 할애가 긴요하고, 아울러 과학전문 신문이나 잡지들에서도 단순히 과학지식 보급의 성격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논쟁적인 주제들을 보다 많이 다루는 방향모색이 절실하다. 뿐만아니라 아예 논쟁을 주로 다루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과학저술가 내지 구술가들도 토의와 논쟁을 촉발시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뛰어 들 때만이 비로소 그들의 대국민 활동이 보다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생각유도단계에 걸맞는 교양용 내지 교육용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면 주목단계나 행동집행단계에 어울리는 단순 정보확산과 고지 활동에 치우쳐왔던 면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저술가협회의 회원들이 이제는 과학기술 관련 사안들을 보다 논쟁적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전환을 해야함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이상 세가지 주장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이 결코 단순히 우발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기 보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그 주장들이 갖고 있는 타당성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